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2022년 0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전공

조민경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지도교수 김 선 주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0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전공

조 민 경

조민경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8월 26일



주 심 철학박사 주동범 (인)

위 원 교육학박사 박태정 (인)

위 원 철학박사 김선주 (인)

목 차

표 목차.....	ii
그림 목차.....	iii
Abstract	iv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6
3. 용어의 정의.....	7
II. 이론적 배경	8
1.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해.....	8
2.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정책.....	14
3.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16
4.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과 관련한 선행연구.....	25
III. 연구방법	29
1. 현상학적 연구.....	29
2. 연구 참여자 선정.....	30
3. 자료수집.....	31
4. 자료분석.....	32
IV. 연구결과	35
1.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5
가. 연구참여자 특성.....	35
나. 연구참여자에 대한 이해.....	36
2.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과정에서의 경험.....	39
가. 혼돈: 문화적 충돌 경험하기.....	40

(1) 음식 차이 경험하기	40
(2) 명절문화 차이 경험하기	42
(3) 시부모님과 마찰 경험하기	43
(4) 사회적 차별 경험하기	45
나. 불안감과 기대감 공존: 앞으로의 한국 생활에 대한 불안 대비 및 기대하기	47
(1)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하기	48
(2)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에 대한 관심 가지기	50
3. 조화 사회적 관계망 내 적극적 상호작용을 통한 자기 성장과 사회구성원으로 스며들기	51
가. 가족으로부터 지지받기	51
나. 친구, 직장 동료로부터 도움받기	52
다. 학부모 모임으로부터 정보 공유 및 인정 받기	53
라. 지역사회기관 및 지역주민으로부터 지원 받기	55
V. 논의 및 결론	57
참고문헌	61
부록	66

표목차

<표 II-1>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현황	10
<표 II-2>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	11
<표 II-3> 학자별 문화적응의 개념 정의.....	18
<표 II-4> 문화적응 과정의 변화유형과 변화범위.....	21
<표 II-5> 문화적응의 유형.....	23
<표 II-6>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에 관한 선행연구.....	26
<표 IV-1> 연구참여자의 특성.....	33
<표 IV-2>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과정의 경험.....	39



그림 목차

<그림 Ⅱ-1> 체류외국인 증감 추이	9
<그림 Ⅱ-2> 국제결혼 현황.....	11
<그림 Ⅱ-3> 문화적응의 개념화와 연구의 분석틀.....	17
<그림 Ⅱ-4> 종족문화 집단과 더 큰 사회의 문화적응 전략 모델.....	24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조 민 경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전공
지도교수: 김선주

요 약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응과정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이들의 문화적응과정에서의 경험이 한국사회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문제는 첫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 중 문화적응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는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 사회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연구주체에 맞게 문화적응 과정에서의 경험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6명의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입국 초기에는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여 혼돈의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주로 ‘일방적인 한국 문화 받아들이기’의 동화 유형 형태로 나타났다. 둘째, 초기 적응이 끝나고 부터는 가족들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기대를 공존하며 자격증 취득, 자녀에게 모국어 가르치기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기 거주화로 들어선 이들은 개인적인 차원의 친구, 지역주민, 학부모, 지역사회기관 등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그들의 정체성과 한국문화를 유지하는 통합 유형의 형태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정착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취업 지원 및 네트워크 활성화시키는 방안 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주제어: 여성결혼이민자, 문화적응, 질적연구, 현상학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Cultural Adaptation Proces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Jo, Min Kyung

Lifelong Education & Human Resource Development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dvisor : Kim Seon Jo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cultural adaptation process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particular, the purpose was to find out what their experiences in the cultural adaptation process meant in living life in Korean society. First of all, what is the cultural adaptation experience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Korean life? Second, how do female marriage immigrants live in harmony? For this study, a qualitativ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6 research participants who have lived in Korean society for more than 8 years and can express their experiences in the acculturation process richly according to the research topic.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was found that the study participants experienced cultural conflict in the early stages of entry and were in a period of confusion. During this period, it appeared mainly in the form of a fairy tale type of 'one-sided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Second, after the initial adaptation, it was found that various efforts such as obtaining a certificate and teaching a native language to children, coexisting anxiety and expectations for the future with family members. Third, those who entered the long-term residence showed an integrated form of maintaining their identity and Korean culture by actively interacting with social networks such as friends, local residents, parents, and community institutions at the individual level. Through these research results, it provided implications for ways to support employment support and activate networks along with customized service support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by settlement stage.

Key words: Female marriage immigrants, cultural adaptation, qualitative research, phenomenolog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이동의 수단인 초국적 이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념과 종족 간 분쟁으로 난민이 증가하고 유학과 여행이 과거에 비해 쉬워짐으로써 해외관광객과 유학생이 증가하였고 해외 진출을 위해 기업들은 외국인을 채용하여 국내·외 노동 인력의 교류가 활발해져 이민이 증가하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 한국 사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자의 수가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구집단이 대거 유입되었으며 단순한 인종적 다양성의 의미를 넘어서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이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래전부터 동질 민족문화를 유지해왔으나 20세기 후반 세계화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과의 접촉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이 198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되어 노동으로 인한 이주가 1990년대에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 수는 2010년 123,093명, 2019년 137,094명으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2019). 이후 2000년대의 이주는 대부분 국제결혼을 통한 인구 유입으로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 현상이 완연하고 우리나라의 인종·민족적 다양화는 여성에 의해 주도(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7)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 간 인구 이동인 초국적 이주는 사람의 이동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고 있는 문화를 함께 포함하여 이동함으로써 한국 사회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로써 이민자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인인

정주민까지 포함하여 현대사회에 문화적응은 중요한 사회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다른 집단과는 달리 국제결혼을 통해 영구 거주를 목적으로 들어온 결혼이민자들은 이들의 가족, 그 가족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 더 나아가 새로운 유형의 사회구성원이 된다.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 사회에서 단순히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설동훈, 윤희식, 2008).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나 전 생애에서 다양한 생애 사건을 경험하게 되며 특히, 결혼, 취업, 출산, 이민, 이혼, 은퇴 등 생애 전환적 사건들은 이를 겪는 과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긍정 또는 부정의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이주’와 ‘결혼’이라는 두 가지의 생애 사건을 동시에 겪으면서 혼란스러움이 사라지기도 전에 한국문화에 대해 기본지식과 준비과정 없이 입국하면서 모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로 인해 적잖은 문화충격을 경험하게 되고(주소희, 이경은, 2014),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해 결혼생활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는다(김연수, 2007; 양순미, 2007).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과정은 한국문화에 적응해나가면서도 모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한국 가족에게도 자신의 모국문화에 대해 알리고 싶어 하는 두문화정체성을 지향하며(김연수, 박지영, 2010), 동화주의적 요구로 인한 자긍심과 정체성 그리고 인권을 무너뜨리고 있고 전반적인 적응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서은경, 김병석, 2013), 인권침해문제, 경제적 빈곤의 문제, 사회적응에 따른 지역사회문제, 교육의 부재, 문화적 차이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조민경, 김렬, 2010).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가정 밖에서도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은 입국 후 언어와 한국문화 이해와 생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실생활에서 바로 필요로 하는 주민센터, 은행, 사회복지관, 단체모임 등 지역사회 내에 각종 기관 및 편의시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는 자녀의 학교생활 및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국가적 차원에서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다문화정책으로 이주 후 초기의 가족 형성, 임신 및 출산기, 아동 양육기, 노동시장(재)진입기 순으로 생애주기별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과 제도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권보다 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정책은 가정 중심으로 지원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일방적으로 한국 문화에 적응할 것으로 요구되는 동화주의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김영란, 2006; 김연희,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정부 다문화 정책은 우리 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치중되어 있으며 동화주의적 통합정책의 보이고 있다. 동화주의는 한쪽이 다른 한쪽과 동일하게 변해갈 것을 기대하는 일방적 통합정책을 의미하는 반면, 다문화주의란 일반적으로 다양한 인종집단들의 문화를 서로 인정하면서 공존하는 것을 추구하는 이념이다(정장엽, 정순관, 2014).

이러한 다양한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여 다 함께 공존함으로써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개념의 다문화주의적 이념은 장기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들의 적응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이들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여 자기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정책적 전환을 이루어야 할 시기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주는 기존에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관계를 버리고 새로운 문화권에서 사회적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이주는 인간의 삶이 재구성되는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 생활 적응은 그들이 살아온 문화적 환경과는 달리 새로운 문화권으로 진입함 동시에 정착한 곳의 언어, 생활방식을 배워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의 문화적응의 개념과 연결된다.

문화적응이란 “문화적으로 서로 상이한 배경을 지닌 개인이나 집단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발생하는 문화적 양상의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 (Redfield, Linton & Herkovits, 1936)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원래부터 지니고 있던 모국문화와 한국문화가 서로 접촉하며 생기는 사고방식 및 생활양식 등 문화적 양상의 총체적 변화를 일컫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김연수, 2013; 이종호, 노연희, 2017).

문화적응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들은 이주한 이들이 새로운 사회에 대한 문화를 수용하면서 원문화 유지를 중요한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주한 사회의 문화와 모국 문화의 관계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문화간의 유지와 새로운 사회의 중심 문화를 어떻게 수용하는지 쌍방향의 관심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학계, 민간단체, 정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국제결혼을 통해 유입된 결혼이민자들의 생활실태와 부적응을 다루던 초기 연구(김영란, 2006; 김오남, 2006; 김이선, 2007)에서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정착하여 10년 이상 장기 거주함에 따라 살아가는데 경험한 적응 과정과 사회통

합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연구(구차순, 2007; 김연수, 박지영, 2010)가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 역량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민정, 신성만, 2010)와 모국문화와 한국의 문화 사이에서의 문화적응의 양상이나 과정을 다루는 연구(최혜지, 2012; 전병주, 2012), 정체성과 상호문화 소통에 관한 연구(김영순, 2020)로 다양하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알 수 있는 점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주고 한국문화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초기 연구의 흐름에서 원문화 유지 및 한국문화를 받아들이는 통합형태의 문화적응이 필요하다는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장기 거주화로 인해 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이해관계가 넓히며 인정을 획득하는 구체적인 생활에서의 개념으로 '한국사회에서 자리를 잡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한국사회 거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문화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자원이나 지지가 제한되어 있어서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된다(신경임, 2018).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다양한 이주민의 유형 중에서 다른 집단과는 달리 한국 사회에서 가정을 꾸려 아이를 낳아 우리들의 이웃이 되어 이곳에서 뿌리를 내릴 공존의 대상자로 볼 수 있으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과정에서의 개인적 경험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돕으로써 질적 연구방법 중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한국 생활의 성공적인 적응을 이룬다는 것을 원문화와 한국사회 문화를 동시에 유지하며 살아가는 유형인 통합

유형으로 바라보고 각 개인적인 경험이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겪고 이들의 입장에서 그 의미와 본질이 어떠한지 탐구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 생활의 문화적응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는가?



3. 용어의 정의

가. 여성결혼이민자

여성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국민인 남성과 혼인한 적이 있는 외국인 여성을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 여성결혼이민자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 사회에 가정을 이루어 거주하며 취업경험이 1회 이상 있는 여성을 말한다.

나. 문화적응

문화적응이란 “문화 간 접촉에 따른 문화적, 심리적 변화에 과정으로 개인의 현상”(Berry, 1997)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 문화적응은 Berry(2003)의 원문화와 주류문화 동시에 유지하는 ‘통합’, 원문화는 포기하고 주류문화는 유지하는 ‘동화’ 두 가지 전략을 문화적응으로 정의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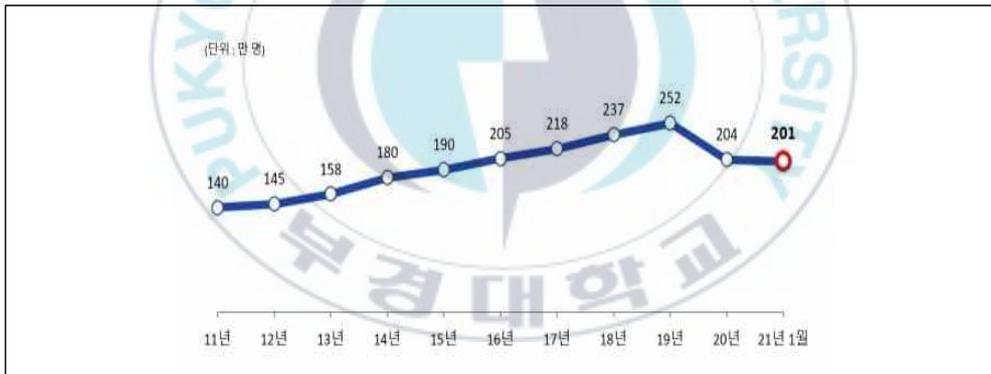
‘여성결혼이민자’ 개념으로 실생활 중에 흔히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국제결혼한 이주여성’,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 주부’, ‘결혼이주여성’, ‘해외결혼여성’ 등 다양하게 사용하였다. ‘결혼이민자(marriage immigrant)’라는 용어는 국제적 용례를 따르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설동훈 외, 2005)되어 2005년 8월 16일에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진행된 ‘사회문화 정책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여성결혼이민자 지원방안’에서 처음 사용된 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추세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 후로 2008년부터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여러 정부 부처 및 시도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라는 용어로 통칭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항에서 결혼이민자의 정의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아래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목은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서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나목은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이다.

이 정의에 대해 ‘이주여성’라는 용어는 국내의 인권단체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며 ‘여성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을 포괄하고 있다. 그 외 여성 결혼이민자, 성매매 종사 외국인(또는 이민자) 여성, 국제적 인신매매를 통해 피해를 본 여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민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설

동훈 외,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혼인 관계를 유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인 남성과 혼인한 적이 있으며 한국에 정착하여 살면서 취업 경험이 1회 이상 있는 외국인 여성을 ‘여성결혼이민자’로 지칭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대 들어와서 한국 사회 내 외국인은 100만 시대를 맞이했다. 이후 꾸준히 이민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변화는 결혼이민자,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난민 등 다양한 형태의 이민자들의 유입에 의해서이다.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것은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 대상 방문취업제를 시행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2021년 1월 현재 201만명으로 최근 10년간 증가 추이는 <그림 II-1>과 같다.



<그림 II-1> 체류외국인 증감 추이

출처: 법무부(2021). 출입국·외국인본부 통계월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이주배경인구’인 귀화자, 외국인파 이주민 2세 등이 총 인구의 5%를 넘을 경우,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고 있고 외국인주민의 증가세는 매년 다문화사회에 가까워지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현황은 경기, 서울 순으로 수도권 지역에 중점

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거주지역별 현황은 <표 II-1>과 같다. 이와 같이 등록 외국인들은 경기도에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서울의 인구밀도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이다.

<표 II-1> 등록외국인 거주지역별 현황

등록외국인 인원계	경기	서울	충남 ¹⁾	인천	경남	경북	부산	충북
0	361,131	227,112	66,705	65,453	64,140	51,132	39,293	35,639
비율계	전남	전북	대구	제주	광주	강원	대전	울산
100%	31,882	30,143	26,958	21,452	20,698	17,092	16,978	16,930

출처: 법무부(2021). 출입국·외국인본부 통계월보

이렇게 등록된 외국인들 중에서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영구적으로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집단이 ‘결혼이민자’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사회로 유입되어 2005년에 정점을 찍었지만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2019)자료에 따른 우리나라 국제결혼 현황을 <그림 II-2>로 살펴보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국제결혼을 한 여성결혼이민자와 국내체류한 외국인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세종특별자치시 4,951명 포함

국제결혼 현황



출처 :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

<그림 II-2> 국제결혼 현황

출처: 통계청(2019). 인구동태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른 <표 II-2> 외국인 주민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결혼이민자 및 자녀의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증가 이유는 다른 집단과는 달리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서의 장기 거주하며 대부분의 자녀의 연령이 학령기에 접어들어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2>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외국인주민 합계			국적미취득자 (장기체류 외국인)					국적 취득자 (귀화자)	외국인주민자녀 (출생)	
	계	남	여	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포동			기타 외국인
'19년	2,216,612	1,184,176	1,032,436	1,778,918	515,051	173,882	160,610	303,245	626,130	185,728	251,966
		(53.4%)	(46.6%)	(80.3%)						(8.4%)	(11.4%)
'18년	2,054,621	1,098,135	956,486	1,651,561	528,063	166,882	142,757	296,023	517,836	176,915	226,145
		(53.4%)	(46.6%)	(80.4%)						(8.6%)	(11.0%)
증감	161,991	86,041	75,950	127,357	△13,012	7,000	17,853	7,222	108,294	8,813	25,821
	(7.9%)	(7.8%)	(7.9%)	(7.7%)	(△2.5%)	(4.2%)	(12.5%)	(2.4%)	(20.9%)	(5.0%)	(11.4%)

출처: 행정안전부(201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이러한 사유로 인해 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들은 어린 나이에 한국 사회로 이주해 오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정보를 얻지 못하기도 하고 기초적인 교육도 받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결혼 중개업체로부터의 제한적이고 거짓된 정보 제공으로 꿈과 환상을 갖거나 한국 드라마 또는 영화를 통해 알려진 한국의 왜곡된 이미지나 현실상황에 부딪혀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의 대상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겪는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다. 언어의 제약으로 인해 가족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자원과 지지망, 그리고 다양한 정보로부터 고립되게 만든다. 의사소통으로 인해 식품 구매 및 교통 수단 이용, 의료시설 예약 및 이용, 공공기관으로부터 도움 요청, 약국 또는 보건소 이용 등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을 방해한다. 더불어 인간관계에서도 친밀감 형성에도 지장을 주며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게 한다.

둘째, 한국 사회 정착 후 일상적인 문화 차이와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를 경험한다. 부부간의 연령 차이가 평균 12.1세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어(김복태, 이승현, 2015) 세대 간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한국의 가부장적인 권위 의식, 생활 습관 등으로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사회의 문화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어린아이 취급을 받기도 하며 이로 인해 시댁 식구들에게 일방적인 순종이 요구되기도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자국과 다른 성 역할 기대, 가부장적인 한국문화는 크고 작은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김지혜, 2015).

셋째, 한국 국적취득 문제이다.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여성결혼이

민자는 혼인한 상태가 2년 이상이면 간이귀화자격이 주어져 국적취득을 할 수 있고, 신청 후 1년 정도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주로 2년의 체류 허가를 받는데 비자의 전제가 한국인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주어진다.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경우 간이귀화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시간과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들은 국적취득까지 항상 불안정한 상태로 살아야 하며, 가정 내에서 불평등한 신분을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

넷째, 자녀 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이다. 한국으로 이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과 출산을 반복한다. 이때, 친정 식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임신과 산후관리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후 자녀가 커가면서 언어와 교육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 문화, 언어, 교육 방식 차이 등으로 가정과 학교 교육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렇게 불리한 교육여건에 놓인 자녀들은 학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잃어 학업성취 능력을 저하시킴으로써 사회적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경제적 어려움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대부분 코리안드림이라는 잘 사는 나라 한국에 대한 기대와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한국으로 시집을 왔다. 그러나 국제결혼을 하는 대부분의 남성들의 연령은 높고 상류층의 남성이 아니기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곤란함을 호소하고 있다(임은희, 2008).

2.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정책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내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다.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에게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3년마다 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 전국 각 시, 군, 구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서비스 통합운영기관)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국비 또는 지방비를 받아 설치되어있다. 위 기관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 상담,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사회 적응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기본사업들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교육(가족 통합교육, 배우자 및 부부교육), 특수목적에 따른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봉사단,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사업,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사업, 개인 및 가족 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 법무부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관련하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출입국 심사과, 체류관리과, 체류조사과 등 이들의 입국 및 체류 자격을 소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주로 산하기관인 고용센터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취업 및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하는 여

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보장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맞벌이 가족을 대상으로 방과 후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초등돌봄 교실, 보육 시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을 통해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육 및 활동, 숙제 지도를 도와준다. 또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상담 서비스를 신청 후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다(다문화가족 지원포털 다누리, 2022).



3.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본 연구의 핵심적 논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대한 것으로 적응과 문화적응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적응은 인류학과 사회학 등 폭넓게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생물은 처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서식하는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 개인 역시 기존의 문화에서 새로운 문화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적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신경임, 2018).

적응이란 문화적응의 장기적인 결과로, 개인이 자신의 집단과 더 큰 사회에서 일상생활에 얼마나 잘 성공했느냐에 해당한다(이대회, 2020). 또한, 주위 환경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과정과 환경을 변화시켜 적응하는 경우와 스스로를 변화시켜 적응(표준국어대사전, 2021)하는 과정 모두를 포함한다. 단순히 환경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의 다양한 상호작용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와 관련한 ‘적응’이라고 하면, 영어로 adjustment, adaptation, acculturation, assimilation, cross-cultural adaption 등 유사한 개념들로 사용되고 있다. Adjustment는 거주하는 국가에서 정서적(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사는 것을 말하며, Adaptation는 기존의 문화가 새로운 문화와 상호작용을 하며 결국에는 새로운 환경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Acculturation는 ‘문화적응’ 또는 ‘문화변용’으로 혼용하여 쓰는 경향이 있으며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문화집단과 그 구성원이 접촉하면서 그 결과로 생긴 문화적 심리적 변화과정을 뜻한다(Berry, 2005). Assimilation은 ‘동화’를 의미하며 그들의 문화 정체성을 포기하고 주류사회에 신속히 흡수되는 것을 뜻한다. Cross-cultural adaption은 ‘문화 간 적응’이라고 하

며, 새롭고 익숙하지 않지만 새로운 문화에 비해 상호 간에 기능적 관계를 확립하여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적응은 새로운 문화에 다양한 활동과 상호작용을 통해 물리적, 심리적 안정을 이룬 상태로 지낸다는 것으로 뜻함을 알 수 있다.

문화적응의 장기적인 결과는 적응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새로운 문화에 다양한 활동과 상호작용을 통해 물리적, 심리적 안정을 이룬 상태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문화적응은 복합적인 현상의 집합체라 할 수 있으며,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중차원/양립차원의 모델은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문화변용 연구자인 Berry(2003)는 문화적응의 여러 구성요소들의 사이에 다양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안된 분석틀을 조합하여 개발하였다. 문화적응의 개념화와 연구의 분석틀은 <그림 II-3>과 같다.



<그림 II-3> 문화적응의 개념화와 연구의 분석틀

출처: 이대희(2020). 문화변용과 적응에서 발취 후 재구성

인간은 태어나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용하고 적응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문화의 역할, 가치, 규범 등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같은 문화 내에서 적응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문화적응은 상이한 문화를 가진 집단들이 지속적으로 직설적인 접촉에 들어갈 때 집단 가운데 하나 또는 모두의 원래 문화 양상에서 생기는 후속적인 변화와 함께 초래되는 현상을 포괄한다(이대회, 2020).

미국의 문화적응(acculturation)에 대한 연구는 동화주의적 ‘적응에 대한 고나점연구가 19세기 초반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연구의 방향성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민족과 인종, 계층 등 소수 특정 문화집단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과정이나 동화를 초점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동화주의적 방향의 적응에 초점을 둔 연구는 대표적으로 Simons, Reuter, Duncan 등이 있다. 1930년대 이후 문화변용과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는 인류학자와 사회학자들에 의해 더 많은 관심과 다양한 논의의 깊이와 심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표 II-3>에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개인적인 측면 또는 집단적인 측면에서의 문화적응 개념을 구분할 것인가가 주로 논의 내용의 핵심이다.

<표 II-3> 학자별 문화적응의 개념 정의

연구자/년도	개념 정의	현상 구분
Thurnwald, 1932	새로운 삶의 조건에 적응하는 과정	개인
Herskovits, 1937	문화적 집단의 상호작용에 대한 문화적응	집단
Gillin & Raimy, 1940	하나 이상의 다른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화 접촉 결과로 사회의 문화가 변화하는 과정	집단
Linton, 1940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	집단

Devereux& Loeb, 1943	다른 사람들은 개인적인 요소를 인정하지만 여전히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요소로서의 집단	집단
Bogardus, 1949	문화 다원주의 논의에서 문화체계	집단
Sporo, 1955	집단과 개인 모두에서 문화적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개인적 차원에서의 문화적응과정은 집단의 문화적응과정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	집단, 개인
Eaton, 1952	개인과 집단 모두에서 문화 다양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	집단, 개인
Dohrenwend&Smith, 1962	집단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창적인 개인의 현상임을 분명히 강조	개인
Graves, 1967	집단문화적응과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차원의 문화적응	집단, 개인
Teske&Nelson, 1974	개인의 동화현상이 집단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	개인
Berry, 1997	문화 간 접촉으로 인한 심리적, 문화적 변화에 과정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현상	개인

출처: 김영순(2020) 발췌 후 재구성

문화적응을 “새로운 삶의 조건에 적응하는 과정”(Thurnwald, 1932)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개인의 심리적 수준에서 문화적응은 음식과 의복, 언어, 가치 그리고 정체성을 포함한 사람들의 행동 범주에서 생기는 변화와 이러한 간문화적 만남에서 생기는 적응과 관련된다고 하였다(이대희, 2020). “문화 접촉 상황에서 문화적 근원이 다른 사람들 간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로 일어나는 변화”(Redfield, Linton & Herskovits, 1936)²⁾

2) Redfield, Linton & Herskovits, M(1936). “Insanity, Memorandum on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bropologist, 49, pp.701-708

라고 정의하였다. Berry(1997)은 문화적응이란 “문화 간 접촉에 따른 문화적, 심리적 변화에 과정으로 개인의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의 다양한 사람들이 긴밀히 접촉하면서 상호작용하며 발생하는 변화과정을 의미한다.

이민자들은 새로운 환경을 접하거나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인지적, 심리적인 적응과 학습을 통해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방법을 터득해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은 고유의 정체성에 영향을 받고 새로운 자신을 형성해 나간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 결혼 전 살아온 환경이 아닌 이주국인 한국의 문화를 접할 경우 문화적으로 적응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고 이민국인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행동과 문화로 변화되어야 한다(최경희, 2014).

이러한 근거로 서광석(2011)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입국 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 소통부터 풍습, 기후, 음식, 가족관계, 경제활동 등 새로운 것들에 대한 새로운 적응과 다음 단계의 적응인 통합을 이루게 함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를 획득하여 가장 이상적인 적응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문화적응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의 기간이 걸리기도 하며, 몇 세대에 걸쳐 긴 세월이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결혼이민자들은 입국 초기 한국문화가 토착집단 문화로 동화되기보다는 자신의 원문화에 집착하여 토착집단의 문화를 거부한다. 이때 개인이나 집단은 새로운 문화와 접촉하게 될 때 사회문화적·심리적 적응상의 변화를 가져온다(최운선, 2007).

문화적응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개인적인 측면과 집단적인 측면에서 나누어 바라보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 또한 개인 또는 집단으로 상호적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여 한 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다.

<표 II-4> 문화적응 과정의 변화유형과 변화범위

현상분류	변화유형	변화범위
집단적 측면	문화적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와 경제 변화 • 관습과 생활 변화 • 사회적 행동 변화
개인적 측면	심리적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정체성 변화 • 개인의 태도 변화 • 사회적 행동 변화

출처: 김영순(2020)에서 인용

첫째, 개인적 측면으로는 문화적응의 과정에서 개인의 심리·정서적 변화에 따라 개인의 태도 변화와 사회적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둘째, 집단적 측면으로 문화적응의 과정에서는 경제 및 관습에 따라 생활이 변화되어 사회적 행동도 함께 변화한다는 것이다. 즉, 공동체 집단의 문화적응과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차원의 문화적응은 모두 문화적응의 과정에서 사회에서 함께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하며 상호작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화적응 과정을 적응의 과정으로 표현하여 집단적 현상과 개인적 현상을 종합하여 <표II-4> 와 같이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나. 문화적응 분석틀과 전략

문화적응은 앞서 개념정의를 살펴본 것과 같이 문화적응의 전략 또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여러 방식으로 개념화되었다. 문화적응의 초기 연구자들은 이민자나 소수민족들의 정착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가치, 태도, 행동의 변화를 포함하는 단일차원의 과정으로 설명하는 단일차원모델(unidimensional model), 정착한 사회의 문화에 참여하면서 고유문화를

유지하며 상황에 따라 주류사회의 적응 및 고유문화 특성의 유지 또는 손실의 과정이 나타나는 이중차원/양립차원모델이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문화변용의 분석틀을 살펴보면 첫째, 단일차원모델은 이민자가 모국에서 이주를 하게 된 정착국의 주류문화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보고 둘째, 이중차원/양립차원의 모델은 다차원적 모델로 한 사회의 관습, 의사소통, 생활방식 등의 구성요소들을 문화적응에 대해 측정을 함으로써 한 사회의 고유문화, 음식, 언어, 사회적 관계, 정체성과 같은 여러 측면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문화 간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것보다 새로운 문화에 얼마나 일방적으로 적응하였는가 즉, 동화되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Berry는 이민자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데 원문화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의 '문화적 유지', 이민자가 새로운 문화를 접촉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접촉과 참여'에 따라 2가지 차원에서 <표II-5>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자신의 원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집단과의 일상적 상호작용을 원하면 통합(integration)유형으로 적응에 있어 다른 유형들에 비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둘째, 자신의 원문화를 유지하지 않길 바라거나 유지할 수 없으면서 다른 문화와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원한다면 동화(assimilation)유형이다. 셋째, 자신의 고유문화와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다른 문화와는 상호작용을 거부하는 것은 분리(separation)유형이며, 넷째, 자신의 원문화와 정체성 유지에 관심도 없으며, 다른 문화와의 관계를 맺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상호작용을 거부하는 것은 주변화(marginalization)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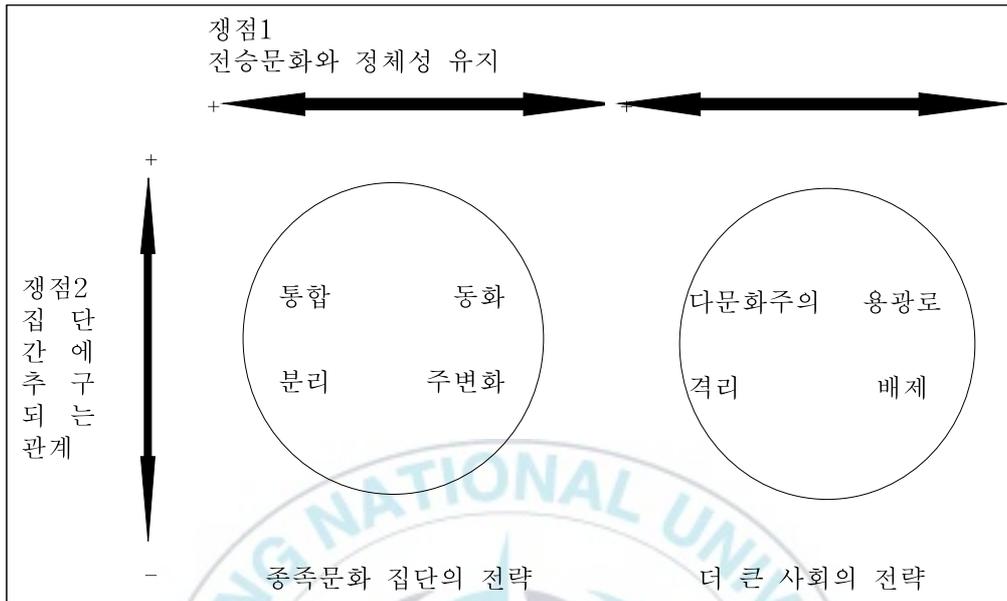
<표 II-5> 문화적응의 유형

문화적응		자신의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YES	NO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YES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NO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출처: 김영순(2020)에서 인용

이렇게 분류된 4가지 유형은 개인을 유형별 상자에 가두는 것을 피하고 있으며 문화적응의 주체로서의 관점으로 개인적 문화접촉과 상호작용을 통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새로운 문화에 얼마나 동화되었는가에 대해 중점을 맞추고 있다. Berry의 초기 문화적응 유형³⁾은 동화정책에 적합한 것으로 현 초국적 이주시대에 맞지 않아 2000년대 들어 발표된 Berry의 문화적응 전략이라는 분석틀을 활용하고자 한다. Berry(2003) 연구의 분석틀은 문화적응 전략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문화적응의 다양한 방식이 문화간 접촉에 대한 단순하게 나타나는 소극적인 반응, 태도가 아니라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정착한 후 많은 변화와 갈등 속에서도 가족을 구성하여 살아가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접목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초국적 이주시대에 맞는 문화적응 전략모델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I-4>과 같다.

3)Berry의 문화변용 전략 분석틀의 초기 버전은 그의 첫 번째 연구 발표물이며, 1967년에 오스트레일리아 수상인 원주민 동화정책을 발표했을 때의 사건으로 생겨났음.



<그림 II-4> 종족문화 집단과 더 큰 사회의 문화적응 전략 모델

출처: 이대회(2020). 문화변용과 적응에서 인용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문화적응을 접할 때 시기와 맥락에 따라 다양한 전략이 사용되는데 이민자들의 문화적응전략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이민자들은 통합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am, 1995; 문은희, 2007에서 재인용). Berry & Kim(1988)에 따르면 문화적응 전략 중 이주민과 주류사회의 구성원 양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관계를 가지는 통합유형이 이들의 적응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들은 문화적응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모국문화 정체성과 한국문화 정체성이 혼용되어 갈등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사회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할 경우, 한국사회의 주류로 진입하기 위해 전략을 바꾸어 나갈 것이며 모국과 정착국의 사회문화적 상황, 이민의 동기, 정착국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 사회정책 등 사회, 환경적 요소가 이민자의 대처 능력, 자원 등 개인적 요소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김연수, 2013)될 것이다.

4.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과 관련한 선행연구

문화적응(acculturation)은 각자 다른 문화를 가진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긴밀히 접촉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변화과정을 의미하며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문화적응은 모국을 떠나 이주해 오면서 기존의 문화를 유지할 것인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것인지 중요한 선택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는 서양에서 주로 진행되어 한국에는 아직까지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 내 문화적응 연구 초기에는 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실태조사 위주였지만 2010년 이후 이들의 적응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가족 문제, 결혼만족도 등 생활실태와 부적응을 다룬 연구(김영란, 2006; 김오남, 2006; 김이선, 2007), 이후 10년 이상 거주한 이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적응 과정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연구(구차순, 2007; 김연수, 박지영, 2010)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나타난 입국 초기의 문제점은 첫째, 경제적 상황과 생활의 어려움, 둘째, 언어와 적응문제, 셋째, 사회적 편견 및 이웃과의 관계, 넷째, 자녀 양육과 교육의 문제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초기 문화적응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입국 후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발생한다는 점은 인지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연구를 진행되었으며, 이후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주체적인 면과 정체성에 대해 보는 새로운 시각이 늘어나게 되면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최혜지(2009)의 연구에서는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을 단일차원이 아니라 개인·심리적 요인, 가족적 요인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을 문화적응 유형으

로 다양하게 구분하여 이를 다차원적으로 이해하는 연구를 시도하면서 시작되었다.

김연수 외(2010)의 연구는 결혼이민자의 원문화 유지 및 주류문화에서의 적응을 이루며 두문화정체성을 지향하고 있으며, 조민경 외(2010)의 연구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동거유형 등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구·사회적요인이 영향을 주며, 염동문 외(2019)의 연구에서는 개인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개인의 교육적 수준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문화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적 요인 중 거주기간으로 나타났다. 기존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바로는 개인 및 가족 구조적 요인, 사회인구학적 요인 등으로 얼마나 문화적응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는 양적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은 개인 및 가족, 사회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다양한 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연구자의 관심이 주어지는 변인에 따라 삶의 질(김명준, 2012), 여가활동(김은정, 2013),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신지연, 2017, 이숙자, 2017), 사회적 관계망(신경임, 2018) 등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변인을 중심으로 문화적응과의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대부분이며 포괄적으로 이들의 입장에서 문화적응과정에서의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질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표 II-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주제	내용
최혜지 (2009)	이주여성	문화적응의 유형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가족적 요인과 이주 관련 및 심리적 보호 요인이 있음
김연수 외 (2010)	여성 결혼이민자	문화적응의 경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생활 중 원문화와 한국문화를 동시에 유지하려는 노력을 수반하고 있음

조민경 외 (2010)	이주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이중문화 정체성 및 사회문화적응	이주민들의 개인적 특성과 정체성이 사회문화 적응에 영향을 미침
김명준 (2012)	결혼이주여성	문화적응유형 에 따른 삶의 질	결혼이주여성들의 모국문화와 한국문화에 잘 적응하는 통합유형일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김은정 (2013)	결혼이주여성	여가활동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취미, 문화체험, 가족지인중심, 오락·유흥 유형의 여가활동은 문화적응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삶의 만족도 또한 높임
신지연 (2017)	결혼이주여성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들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는 문화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숙자 (2017)	여성결혼이민자	문화적응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5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한 여성결혼이민자 집단은 자아존중감이 문화적응, 사회적지지,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신경임 (2018)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적관계망 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망이 있으며,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염동문 외 (2019)	결혼이주여성	문화적응 스트레스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및 교육수준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줌.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표Ⅱ-6>와 같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초기 연구에서는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 과정이 단일차원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모국과 한국문화의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며 조정과 통합의 과정을 통해 새로

운 조화(균형)을 이루어 가는 것이 개인의 문화적응을 주도해나간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 및 가족, 사회적 요인을 통해서 문화적응과정에서의 개인이 겪은 경험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주로 한국에서 가정을 이뤄 8년 이상 거주 하고있는 이들의 문화적응과정을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개인적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현상학적 연구

현실에서 실증적 자료를 기초로 수행하는 연구 방법론으로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수량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양적 연구 방법과 언어적 표현 내에 있는 의미해석을 통해 현상을 이해하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과학 철학에 근거한 양적 연구 방법만이 과학적이며 객관성이 높고 체계적이라는 생각이 오랫동안 지배해 왔으나 여러 학문 분야에서 인간을 탐구함에 있어서 인간을 너무 단순화하고 의미를 박탈하는 양적 연구 방법의 한계를 지적하였다(김분한 외, 1999). 따라서, 행위자들이 모종의 사회현상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와 가정을 바탕으로 개인의 경험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방법(유기웅 외, 2018)인 질적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질적 연구는 현장에서의 경험이나 진술, 면접, 관찰 등을 통해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기초로 어떠한 의미들을 도출해 내고, 그 연구 과제나 관점에 근거하여 다음 단계의 개념이나 틀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한 자료를 생산해 내는 연구 과정이라 할 수 있다(신경림 외, 2004).

질적 연구 중 현상학 연구는 자연과학적 인식으로 실증주의를 반발한데서 비롯되었으며 20세기 초 Husserl에 의해 시작되어 ‘개인의 경험에 대한 이해’하는 것으로 개인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서술하고, 그 경험에 대한 해석을 통해 그 의미와 구조를 알아보고 그대로의 사실 그 자체로 돌아가서 ‘현상의 본질’ 직관하는 학문이다. 이러한 현상학 연구 방법의 특성에 맞게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기술(description)하는 것이다. ‘사태 그 자체’, 인식 이전의 본질적 세계로 복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의 기술이며 해석(interpretation)은 이차적인 것으로 기술의 한 형태이다(최승은, 2020).

둘째,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의 본질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 선입견과 연구자의 견해를 버려야 한다. ‘현상학적 환원’(phenomenological reduction)으로 괄호 치기(bracketing)와 판단 중지(epoche)를 의미한다.

셋째,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있는 그대로 직관하여야 한다. 판단 중지를 통해 본질을 직관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의 경험과 세계를 맥락적 관계로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현상학 연구는 ‘개인의 경험과 현상의 본질’을 탐색하고 기술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자들이 그 세계와 실제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밝혀주는 기술과 그 체험된 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목표를 가진다(Giorgi, 2004).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는 한국사회에서의 문화적응과정의 개인적인 경험을 겪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일상생활에서의 경험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일화나 현상을 설명하는 의미 있는 장면에 대한 현상학적 반성 과정을 통해 자료분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선정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현상학 연구의 참여자 선정의 원칙은 일반적인 질적 연구의 참여자 선정 원칙과 크게 차이가 없다. 적절성과 충분성의 원리에 따라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한다(신경림 외, 2004). 적절성이란 연구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고, 충분성이란 연구 현상에 대한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을 하기 위해 자료가 포화 상태에 도달하도록 수집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현상을 경험하였으며 경험한 것을 생생하고 잘 표현하고 심도 깊게 표현을 잘 해 줄 수 있는 참여자로 선정할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에 거주하며 국제결혼을 통해 이민(F-6)하여 한국사회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여성결혼이민자로 한정하였다. 평균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이주 후 바로 임신 및 출산을 경험하며 초기 정착 기간인 3년 내외 거주 후에는 학업 및 취업 등의 다양한 경험으로 인해 8년 이상이 되면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풍부하게 답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적인 부분인 취업 경험이 1회 이상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로 제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영구 거주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이들의 문화적응과정에서의 경험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그들을 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선정 기준을 지정한 뒤 대상자 선정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1차 선정 후, 참여 확정자에게 부탁하여 또 다른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소규모의 응답 집단으로 시작하여 비슷한 속성을 가진 또 다른 사람들과 연결됨으로써 연구참여자가 더욱 많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위 대상자 선정 기준에 맞는 연구참여자들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 남자와 결혼한 이민자 여성으로 총 6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면담과 문서기록 수집을 통해 진행되며 수집절차는 세 단계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관련된 논문, 학술지 등을 참고하였으며 문헌 고찰을 통해 면접 질문을 구성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의 참여자 선정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1차적으로 선정된 참여자들의 지인인 여성결혼이민자 3명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으며 총 6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일관성 있는 심층 면접을 위해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 가이드(부록 참고) 구성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 면접은 코로나19 상황과 연구참여자들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2021년 10월 중 개인별로 일정을 조정하여 참여자별 전화 면접을 1회~2회 실시하였다. 심층 면접에 앞서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 후에 면접 내용 녹음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사전 동의를 얻어 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가 불명확하거나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된 경우 추가로 전화와 문자를 통해 비대면으로 추가자료를 수집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자료수집 직후 진행되었다. 심층 면담 시 작성한 관찰한 내용과 녹취자료를 바탕으로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4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는 총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의 전사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여성결혼이민자의 경험에 대해 전반적인 대략적 의미를 파악하였다. 면담에서 수집하고 전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과 관련한 경험에 대한 추가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다음에 진행되는 면담 시에 반영하였다. 2단계에서는 전체 연구자료를 다시 계속적으로 읽으며 문화적응 관련한 경험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지우며 현상 및 심리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의미 단위들을 구별함으로써 의미 간 전이(transformation)가 일어나거나 차별적인 내용이 나타나는 부분은 사선을 그어 구분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진술을 누락되거나 왜곡되는 부분이 없도록 재차 확인하며 의미 단위를 나누었다. 요약된 의미 단위를 토대로 동일한 의미 단위가 있으면 바꾸어 중첩되지 않는 의미 단위들로 확인하였다.

3단계에서는 이론적인 언어로 변경하고 공동 의미 단위를 범주화하였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나열하였다. 이를 통해 6명의 연구참여자들에게서 도출한 의미단위를 확인하여 그중에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여 분석하였다. 의미 단위로 구분한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연상하여 충분히 공감될 수 있는 단어로 변형하였고 공동 의미 단위를 다시 통합하여 의미 단위로 요약했다. 연구 주제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게 이론적 용어로 변환하기 위해서 다시 전사 자료로 돌아가 연구자의 선입견 배제와 판단 중지로 현상학적 환원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 과정으로 나타난 의미 단위를 종합한 후 통합하였다. 전환된 의미 단위를 기초로 구성요소들을 도출하여 이 요소들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경험의 구조로 통합하였다. 도출된 경험의 일반적 구조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에게서 얻은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재점검하였다. 이때 연구참여자별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험의 구성요소가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보았다. 각 요소들을 관계와 과정적으로 나열하고 구성요소 간 관계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속성들을 통합하고 재배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연구자의 시각 검증 및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들을 다시 만나 면담 내용을 왜곡하거나, 임의로 추가하거나 생략한 부분은 없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 연구참여자가 전달한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였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질적 연구 전문가에게 절차 및 분석과정에 대해 지도를 받아 진행함으로써 해석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었다.



IV. 연구결과

1.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 연구참여자의 특성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심층 면담을 진행하기로 한 여성결혼이민자는 10명이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해 면담이 어려운 자들을 제외하니 총 6명이 참여하였다. <표 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신국은 필리핀 2명, 중국 2명, 캄보디아 1명, 몽골 1명으로 국적취득은 모두 다 한 상태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연령대는 34세부터 50세까지였다. 30대 4명, 40대 1명, 50대 1명이며, 취업 경험이 있으며 시댁 식구와의 동거는 1가족 외에는 분가하여 5가족은 분가하여 따로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체로 한국거주 기간이 긴 만큼 한국말은 유창하였으나 말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였다. 그러나 10년 이상 거주한 자들은 말의 맥락 이해와 말하기, 쓰기가 모두 우수하였다.

<표 IV-1> 연구참여자의 특성

참여자	출생년도	출신국	한국거주기간	국적취득여부	시댁동거여부	자녀유무	직업경험	한국어수준
1	1972	중국	만13년	○	×	○	○	상
2	1983	필리핀	만11년	○	×	○	○	중
3	1988	몽골	만8년	○	○	○	○	중
4	1987	필리핀	만12년	○	×	○	○	상
5	1982	캄보디아	만10년	○	×	○	○	중
6	1983	중국	만10년	○	×	○	○	상

나. 연구참여자에 대한 이해

□ 참여자 1 (50세, 중국)

참여자 1은 한국 거주기간은 14년차이다. 동거 중인 가족은 4명으로 본인, 남편, 초등학생 자녀 1명과 중학생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결혼 초기에는 명절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이해한다고 하였다. 지금 현재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일을 하고 있으며, 취업을 하게 된 경로는 본래 식당과 같은 서비스 직종에서 일을 하다가 손목과 몸에 무리가 가게 되어 구직활동을 하던 중에 친구의 권유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알게 되고, 현재는 부산 전역의 구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다니며 초,중, 고등학교에 다문화이해교육을 다니고 있다. 한국생활과 자녀의 교육 정보는 주로 지역사회 내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주민센터와 학부모 모임을 활용한다고 하였다.

□ 참여자 2 (39세, 필리핀)

참여자 2은 한국 거주기간은 12년차이다. 동거 중인 가족은 5명으로 본인, 남편, 초등자녀 2명과 중학생 자녀 1명이다. 입국 후 시부모님과 함께 모시고 살았으나 3년 전부터는 분가하여 살고있는 중이다.

말하는 어려움은 없지만 말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며, 한국 생활에서 자신이 많이 알아야지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여 배움에 대한 의지가 강해 보였다. 현재 집 근처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조리원 보조로 일하고 있으며, 지금 하고있는 일과 시댁 분가 후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사회적 관계망으로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올 때 함께 온 3명의 친구를 의지하고 있으며, 한국에 와서 한국어교육과 문화를 배우게 된 곳인 복지관에서 만난 친

구 5명을 지금까지 가끔 페이스북으로나마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 참여자 3 (34세, 몽골)

참여자 3은 한국 거주기간은 9년차이다.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왔지만 언니의 권유로 인해 한국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살게 되었다. 지금 현재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고 있으며,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아서 자녀들의 성향과 예절 등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점이 많다고 하였다.

참여자3은 시어머님의 도움으로 ○○돼지국밥집에서 4~5년 이상 일하게 되었고, 지금은 쉬고 싶어서 휴직상태라고 하였다. 휴직 중에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취득을 위해 공부 중이며, 지금까지 남편의 도움으로 한식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이다.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어 교육을 배우러 다니면서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했으나, 다들 생활하는데 바빠 교류가 많이 없어서 친한 친구는 많이 없고, 남편이 소개해 준 몽골 친구는 3명 있다고 말했다.

□ 참여자 4 (35세, 필리핀)

참여자4은 한국 거주기간은 13년차로 필리핀에서 일하는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한 후에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본인과 남편, 중학생 딸 2명과 함께 거주 중이며, 이 참여자의 경우 한국말을 쓰기, 듣기 실력이 높게 나타나 어떻게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켰는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였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영어가 가능한 방문지도사 선생님을 소개받아서 공부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2~3년간은 필리핀 친구를 만나는 것을 피하고, 다른 나라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답하였다.

참여자4는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코로나19 여파로 그만두게 되었으며,

자녀가 중학교 입학할 하게 되면서 학교생활이나 공부하는 것에 신경이 쓰여 구직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 중이라고 답하였다. 한국 생활에서 도움을 받는 개인적 사회 관계망으로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많았으며, 학부모들과의 친분을 쌓아 자녀들의 교육 정보 공유 외에도 여러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하였다.

□ 참여자 5 (40세, 캄보디아)

참여자5은 한국 거주기간은 11년차로 캄보디아에서 살 때 집안에 도움을 주고자 국제결혼을 선택하였다고 답하였다. 한국 생활에 대해 법적인 부분이나 병원 이용,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등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답하였다. 또한 남편과 자녀와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하였다. 지금 현재 식당 보조로 일하고 있으며 호텔객실관리사, 유치원, 식당 보조 등 대부분 서비스 직종으로 다양한 취업 경험이 있었다. 자신의 개인적으로 캄보디아 친구들과 모임과 친정엄마와 같은 멘토-멘티 역할을 해주시는 정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한국 생활에서의 힘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답하였다.

□ 참여자 6 (39세, 중국)

참여자6은 한국 거주기간은 11년차로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본인과 남편, 초등 자녀 2명과 함께 거주 중이며 입국 초기에는 한국 명절 문화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했으나 현재는 명절 때면 시아버님께 드릴 용돈 봉투를 준비할 정도로 한국 며느리가 다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였다.

현재는 남편의 일을 조금씩 도와주며 휴직상태라고 하였다. 휴직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공부 중이며, 이 전에는 호텔객실관리사 취업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자격증 취득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사회에 살아가는데 필요로 할 것 같아 대비해둔다고 하였다.

참여자6은 개인적인 사회적 관계망으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있으며, 다문화가족임을 밝히고 싶지 않으나 학교에서 자녀 공부를 위해 지원되는 혜택을 선택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임을 밝히게 된다고 하였다.

2.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과정에서의 경험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후 한국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여성결혼 이민자들의 문화적응과정에서의 개인적 경험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초기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과정을 겪었는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들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6명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고 범주화 과정을 거친 후, 공통되는 주제로 구분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초기에는 가족 내에서 언어,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고, 초기와 중기에도 사회에서도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면서도 한국 생활에서의 적응을 위해 계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장기적으로 거주 중인 이들은 개인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생활의 안정적인 정착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별로 묶은 연구결과는 <표 VI-2>과 같다.

<표 IV-2>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과정의 경험

구분		주제목음	하위범주
문화 적응 하기	혼돈	문화적 충돌 경험하기	음식 차이 경험하기
			명절문화 차이 경험하기
			시부모님과의 마찰 경험하기
			사회적 차별 경험하기
	불안감과 기대감 공존	앞으로의 한국생활에 대한 불안 대비 및 기대하기	미래를 대비하여 자격증 취득하기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에 대한 관심 가지기
조화 롭게 살아 가기	조화	사회적 관계망 내 적극적 상호작용을 통한 자기 성장과 사회구성원으로 스며들기	가족으로부터 지지받기
			친구, 직장동료로부터 인정받기
			학부모 모임으로부터 정보 공유 및 인정 받기
			지역사회기관 및 지역주민으로부터 지원받기

가. 혼돈: 문화적 충돌 경험하기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한국으로 이주 후에 ‘차이나 차별로 인해 충돌’ 하게 된 경험을 진솔하게 답해주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을 하지 못해 침묵하기도 하였다. 입국 초기부터 현재까지 문화충돌은 ‘음식 차이 경험하기’, ‘명절문화 차이 경험하기’, ‘시부모님과의 마찰 경험하기’, ‘사회적 차별 경험하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음식 차이 경험하기

연구참여자들이 한국으로 이주 후 제일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음식’이었다고 답하였다. 한국 음식을 처음 접했을 때 기억은 매우 맵고, 짜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고 하였다. 더불어 음식을 하는데 있어 음식을 만드는 방법도 상이해서 한국 생활 초기에는 가족과의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한다.

“닭지볶음 먹고 죽는 줄 알았어요....닭지볶음 너무 맵더라고요.....우리는 맑은 색이거나 토마토거든요....토마토인줄 알았어요....근데 저는 외국사람이라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알 줄 알았는데 갑자기 먹으니 화~하대요...처음에는 멸치볶음, 김만 먹고, 요리를 아예 못하니깐...이제 여기서 매운 거 먹다보니까 괜찮은거지...여기서 일할 때 식당안에서 밥에 커피 300원짜리 자판기 커피를 맡아먹었잖아요...우리는 입맛이 없거나 반찬이 없을 때 그렇게 먹어요...”(참여자4)

“그 음식 많이 달랐죠...저희는 코코넛 많이 들어가잖아요....한국에는 그냥 뭐...조미료도 많이 들어가고...그래서 맛도 이상하고.....우리나라는 조미료 많이 안들어가요...그래서 코코넛 것갈도 많이 쓰고.....요리할 때...”(참여자5)

“우리는 감자 볶음도 기름 듬뿍~넣고 볶는데 너무 느끼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또 매운 거를 못 먹어요. 우리 집 식구들은..우리는 매운 음식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그러고는 다른 건 별 차이가 없어요. 다 비슷하게 먹고 하니까...음식만 아니면....그리고 뭐...향 나는 거 먹고 지금은 다 못 먹어요.”(참여자6)

연구참여자들이 한국 생활 중반쯤 되었을 때에는 한국음식만 먹고 가족들이 자신의 나라 음식을 하면 냄새나 맛 때문에 꺼려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고 한다. 참여자2의 경우, 시아버님께서 필리핀 음식이 맛있냐고 비꼬는 듯이 말을 해서 그 때부터는 한국 음식만 먹는다고 하였다.

“가끔씩 필리핀 음식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요리해서 같이 먹으면 “맛

이나?” 계속 물으시고 저는 맛있는데 “맛있냐? 맛있냐?” 상대방한테 계속 물으니
깐...그때부터는 필리핀 요리 안해요. 저 요리 안해요. 그냥 반찬나오는대로 시어머
니 주시는대로 먹어요.”(참여자2)

참여자3은 몽골에서는 보통 고기를 자주 먹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양
고기를 해서 함께 먹고 싶은데 냄새가 난다고해서 처음에는 소고기를 구워
서 먹었는데 가족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혼자 먹는 것이 싫어서 음식을 안
하게 된다고 하였다.

“양고기 냄새난다고 하니까...혼자 먹었죠..양고기 아예 안하고 소고기 구워 먹
고...그러니까 내가 하니까 귀찮은 건 아니고 음식을 같이 먹어야 한집에서 사는게
좋은데.....같이 안 먹으니까 하다 보니까 귀찮아서 안 하게 되고...”(참여자3)

(2) 명절문화 차이 경험하기

연구참여자들이 또 힘들어하는 부분이 명절문화 중 ‘제사’이다. 제사는
지내지 않는 나라도 있고, 지내는 나라도 있다. 제사를 지낸다하더라도 또
음식이 각기 다르다. 참여자들은 초기에 명절에 음식 가지 수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기도 했으며, 제사 음식을 하는 것을 빨리 따라가
지 못하는 것이 조금 힘들었다고 하였다.

“저희는 일단 음식을 다 채워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가정
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웃음) 보면 처음에는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왜? 안 먹고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라서요. 음식 남기고 날이 지나서 버리고 빨리 빨리 제사 음
식을 못 먹으면 그것에 대해 조금 고민을 했어요. “굳이 이렇게 많이 해야 하나?”
물어보면 제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참여자1)

“사람이 살다보면 그 자기 습관이 있잖아요. 문화 차이라고 하면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한국에 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따라가기가 힘들니까 거기 조금 그렇지..다른거는 없는거 같아요. 그리고 뭐 한국에서 제사를 지내니깐.....(웃음)”(참여자6)

이러한 한국명절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긍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참여자3의 경우, 시댁의 남편이 큰아들이고 큰집이라 제사를 1년에 10회 이상 지내는 집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제사를 지내면 시아버님께서도 좋아하시고 시어머님과 제사 준비를 같이 하니까 거부감은 없다고 하였다.

“하루 쉬고 제사는 어머님이랑 같이 준비하니깐 괜찮고...아버지 기분 대게 좋아요...제사 지내니깐...같이 사는 사람 기분 좋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좋으니까.....저도 그렇게 힘들지만 좋아요...”(참여자3)

(3) 시부모님과 마찰 경험하기

결혼이민자들은 보통 시집을 오게 되면 처음부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부모님들은 아직까지도 남아선호사상과 가부장적 태도가 있어 실생활에 있어 많은 대립 상황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남편은 거기 그냥 앉아있으면 시어머님은 “저리가! 저리가~”하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참여자2)

“그때는 한국말이 안 되니까 안 하겠다 말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는거 같아요. 원래는 외국인들이 왜 받아들이냐면은 그때는 말이 안 되니까 이거 해라 하면 네~ 이렇게 우리는 항상 네...너 이거 해라 하면 항상 네 알겠습니다~어머님 항상!...어느 외국인이 와도 어느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래요...다 그렇게 이야기해

요.....우리가 인식하기로는 여기 시엄마가 위에 있다는 쪽으로 얘기해요...우리한테...남편을 하늘이라고 하잖아요...시엄마도 남편과 같다고 우리한테는 이야기해요.....”(참여자4)

보통 입국 초기에는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내지 못하고 “네네” 그냥 수긍하는 대답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참여자2의 경우, 한국어교육을 받으러 가거나 친구를 만나고 싶을 때 시부모님께서 매번 “안돼”라고 하고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그 때 뭐 배우러 가면 안돼, 밖에 나가면 안돼, 친구 만나면 안돼...안돼 다 안돼~이랬는데 지금은 가끔씩 만나면 괜찮은데 친구들하고 하면 뭐 하고 혹시나 하면서 나를 안 믿는거예요. 어디 나가면 다 안돼 안돼~해서 계속 이러면 죽을 거 같아서...”(참여자2)

참여자3의 경우, 자녀 양육에 관련하여 음식 투정이나 생활습관에 있어 단호하게 말을 하려고 할 때, 손자녀를 감싸 안아 자녀도 눈치를 보고 시부모님이 계실 때와 안 계실 때 태도 차이가 보이는 것에 대해 혼란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아버지, 어머님이랑 같이 사니까 얘기가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뭐라고 하면 얘기 친손자니까...또...누나 3명에 남편 혼자라 외동아들이예요. 우리 애들을 귀하게 생각해요. 내가 뭐라고 하면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애

들이 눈치가 있어요! 특히 잘 알아! 그냥 맛도 보지도 않고 맛 없어하고 피자, 치킨 시켜 먹고 싶어. 치킨, 피자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밥 먹을 때 이거 먹어보고 말해야지 먹어보지도 않고 이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기 편을 들어줘요.”(참여자3)

(4) 사회적 차별 경험하기

연구참여자들은 여성결혼이민자로 살아가는데 국적을 말할 경우,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국적을 거론하지 않길 원하고 아직까지도 나라별로 다양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1은 “너의 나라로 가라”, “중국은 짜퉁이지!”, “코로나 너희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 나온 거 아니냐? 싫다.” 등 중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적으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지가 “아~그래 중국! 중국은 짜퉁이지!” 짜퉁은 다른 지역도 많이 만들고 다 하고 있거든요. 짜증 나요. (어이없는 듯한 표정과 웃음) 단지 중국 인원 수가 많고 인구가 많고 크다보니 거기는 10명이 가짜를 만들든, 1명이 만들든 어쨌든 가짜를 만드는 것은 똑같은데 너무 크다 보니까 “아~ 가짜하면 무조건 중국, 신사 나라하면 영국” 이 이미지가 너무 고정으로 박혀있기 때문에 그게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인권강의 수업을 나갈 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바라보지 마라, 그 한 사람만 보는 거지 이 사람이 중국사람이기 때문에 너희 어? 짜퉁!”, “왜 내 국적 가지고 그러지?” 굉장히 이런 게 강해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도 똑같아요. “너희 중국! 너희 거기서 만들어 냈잖아. 너희 가지고 가라” 이거죠. 그 나라 사람들도 자신이 발병되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메르스도 어찌 보면 외국에 나간 한국사람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퍼진 것이 메르스지, 이 메르스가 아프리카인지 사우디에서 온 것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한도 생겼지만 한국으로 들어온 계기는 한국사람이 거기서 들어왔기 때문에 퍼진거지 우한에 있는 중국사람이 들어와서 퍼진 것은 아니거든요. 너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은 점이죠.”(참여자1)참여자6은 구직 활동 중 결혼이민자라는 것을 밝히면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될까봐 숨긴 경험도 있다고 하였다.

“숨기는 경우가 많아요...나는 가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조심스럽게 얘기함).. 음...문화차별이라고 해야 하나? 사람차별...인종차별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전에 선거운동하는 알바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하는 거 보고 “고향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다른데라 하면 안 써줄 것 같아서 강원도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믿긴 하더라고요. “아~이런 데서는 이런 게(차별) 좀 있구나.”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데서는 이게 그거 하면 안 되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억양 같은 거 말에서 좀 다르다 하더라고요. “말투가 이상하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참여자6)

연구참여자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한 지 장기화될수록 다문화자녀의 연령도 높아지며 자녀들이 다문화가족이라는 낙인으로 왕따를 경험한 적이나 왕따를 지금 현재도 당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생각해서 다문화가족임을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다문화 자녀일 경우 지원되는 교육 혜택이 많아 스스로 밝히기도 한다고 하였다.

“학교 같은 반 친구가 “니 엄마 굳이 왜 몽골사람이냐?”고...그래서 우리 ○○이가 “너희 엄마는 왜 굳이 한국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나갔는데도 기분 나빠서 선생님한테 말하니까 선생님께서 그 애를 혼내고 뭐라하고 우리 애도

기분 안좋고 했는데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사니까 좋아요.”(참여자3)

“왕따를 ○○유치원 때 “너는 필리핀 사람인데 왜 여기 있어?” 이런 거 애들이 많이 해 가지고 그러면서 딸래미도 집에 도착하면 울고 하니까 내가 애들 계속 강하게 키웠거든요. 지금은 중학생인데 그때도 강하게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중학교 올라가니까 우리 딸이 강하게 키웠다 생각했는데 약하더라고요. “음~○○야, 아 빠는 한국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에 와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라. 조금 조금씩 반응을 하는데 “너는 왜 영어를 안해?” 이런거야 친구들이 우리 ○○하는 반응이, “니가 영어하면 알아듣니?”라고 하는데...이제 중학생이 그래도 왕따가 있긴 하더라고요. 딸이 스트레스도 받고...심리상담도 받고 지금...공부도 스트레스고...친구도 스트레스고 하다 보니까.....너무 힘들더라고요. 신경을 많이 써야해가지고 아직까지는...그래서 아직까지는 공부만....하는거죠...”(참여자4)

“한국사람 항상 차별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가면..놀이 가면 특히, “○○이 너는 피부가 까맣잖아...” 차별 그런 거 말이 나왔어요...피부가 까매서....자기 놀러갔을 때 어떤 할머니가 피부가 왜 까맣노...너는 차별할거야...이런 말도 나오고요...외국인이랑 한국사람하고 비교하면 외국인이라고 하면 차별 많이 나와요.....제가 봤을 때...”(참여자5)

나. 불안감과 기대감 공존: 앞으로의 한국 생활에 대한 불안 대비 및 기대하기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 거주기간이 중장기적 단계로 갈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과 더불어 안정적인 정착을 이루기 위해 기대감을 가지고 스스로 노력하고 있었다. 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적응으로 보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하기’,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에 대한 관심을 가

지고 노력하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하기

연구참여자들은 취업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자격증 취득함으로써 자신만의 스펙을 쌓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당한 한 가족구성원으로서 자녀에게(가족)에게 인정을 원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3은 자격증 취득을 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 때문임을 의미한다. 시부모님들을 직접 모시며 요양하고,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5일 근로 후 주말은 쉴 수 있는 것을 보장받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밤 타임으로 일하고 임신하고 나서 그만두고 애들 키우고 나서 4년 전에 막내 유치원 보내고 나서 운전면허증 따고 한식조리사도 따고, 한식조리사 딸 때 이 한식조리사를 따야 토요일, 일요일을 쉴 수 있다고 하니까 일 한 곳은 두 군데밖에 없어..한국에서 꾸준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쉬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한식자격증 따야 자격증이 생기고, 주말은 쉬고 빨간 날은 쉴 수 있다...그래서 나라에서 카드 만들어서 300만원 지원 받고..”(참여자3)

“아버님이 75살이고, 어머님 68살 당뇨가 있어서 몸이 안 좋고 해서...자격증있으면 본다고 나라에서 돈 받을 수도 있고..”(참여자3)

참여자6은 한국생활에 적응하여 살아가는데 힘이 된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데 취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 나의 스펙을 쌓아야한다고 이야기했다.

“자격증을 하나 하나 따다 보면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거 있잖아요. 나
에게 스펙도 쌓아지고 취업할 때도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도 빨리 될 것 같
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스펙이 있으면은 경험은 없지만은 가서 스펙이 있으
면 취업이 빨리 될 것 아니에요....? 빨리 되면 배우면서 취업이 될 것 같고 가서
자격증을 빨리 따놓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거예요. 이래서 계속...”(참여자6)

참여자4는 네일아트, 바리스타 자격증 등 다양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
었다. 이러한 자격증을 계속적으로 준비하는 이유는 자녀가 친구들에게 자
신있게 “우리 엄마 그 일하는데 자격증 있잖아. ○○○자격증 준비 중이
야”라고 자신있게 엄마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
로 보였다.

“이젠 딸한테도 애한테라도 조금이라도 자신감....엄마가 어디서 다녀? 뭐 다녀?
했을 때 자기 친구들이 물어봤을 때...어제도 자기 친구가 한번 물어보대...통화하면
서 뭐 이야기 하다 보니까 나온건가봐요...궁금하죠....내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궁금
하죠....우리 엄마 내일 시험쳐...무슨 시험? 하대....○○가 요양보호사 지금 준비중
이야....하더라고요. 그니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시아버지하고 있
을 때는 보조 했었거든요. 식당 보조..그 때 했을 때는 ○○가 엄마 어떤 일 해?
이러면 식당에서...하면 조금...그럼 자신감도 없어지더라고요. 애가 말 하는게...”(참
여자4)

참여자5는 남편의 나이도 있고, 자녀들이 미래에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열심히 일한다고 말했다. 한국 생활에서의 현실적인
걱정과 동시에 기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래에 행복하게 사는거....우리 미래에.....애들도 미래에.....좀 혈령하게 키우고
싶어서...돈 걱정 없이 잘 크고....그냥 뭐...미래 생각해서 열심히 일하는거죠.....남편

이 나이가 많아서...허리도 수술하고.....(참여자5)”

(2)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에 대한 관심 가지기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생활의 장기화가 되어 갈수록 자녀의 이중언어 습득에 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2,3개 국어를 할 수 있다면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가족 자녀로 살아가는데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때문이라고 하였다.

참여자5,6은 자녀들의 이중언어 습득의 필요성을 알고 캄보디아어, 중국어를 실생활에서 대화하는 것을 시도하지만 자신과는 달리 자녀들은 이중언어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습득 환경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애들을 잘 키울지...뭐 우리는 우리나라 말을 가르쳐줘야하는데 자기가 관심이...애들이 관심이 없어서....저도 시간이 없고....왜냐하면 우리 나라말만 하면 한국말이 늘지 않잖아요... 그래서 생활할 때 우리 나라말(캄보디아어)로 대화하는데.....”(참여자5)

“그렇진 않고요. 아이들하고 중국어로 대화하는 것은 가르치고 싶은데...애들이 안 할려고 해서.....(목소리 작아짐)” (참여자6)

3. 조화: 사회적 관계망 내 적극적 상호작용을 통한 자기 성장과 사회구성원으로 스며들기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문화적응을 한 후에는 한국 생활의 안정적 정착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며 이들 개인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을 활용하여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보내주는 것은 가족(남편)이었으며, 지역사회와 주민, 학부모와도 도움을 주고받기를 하고 있다. ‘가족으로부터 지지받기’, ‘친구, 직장동료로부터 인정받기’, ‘지역사회기관 및 지역주민으로부터 지원받기’, ‘학부모모임으로부터 정보 공유 및 인정받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가. 가족으로부터 지지받기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주체는 남편과 자녀이며 자신을 믿어주는 든든한 남편과 자녀로 인식하고 있었다.

참여자3의 남편은 자격증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참여자4의 남편은 걱정하게 아내에게 할 수 있다는 독려를 보내고 있었다. 참여자6의 남편은 표현을 잘 못하는 무뚝뚝 남편이지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남편이라며 말했다.

“남편! 남편이 그냥 한식 자격증 따라 했을 때 요양보호사 따라고 했어요. 두 개 다 자격증 남편이 따라고 했는데 2개 자격증 중에 요양보호사가 제일 좋다, 두 번째는 한식자격증 그럼 난 요양보호사보다 한식자격증 먼저 땀어요. 여성회관에서 2년 정도 목욕 봉사 했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서....자기 만족하고 이러니까 한식 자격증 먼저 땀어요..”(참여자3)

“우리 남편에게 고맙죠...내가 뭘 배우고 싶다 하면 우리 신랑은 반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응 할 수 있어!”하지 끝까지 한다고 하면 “니가 할 수 있겠나?” 이런 말 한번도 들어본 적 없고 할 수 있어! 그런 말만 하고, 떨어지면 “다시 도전하면 돼” 뭐 얼마나 했는데 다시 도전하면 되고 딸은 “엄마 파이팅할 수 있어!” 자기들은 나를 믿으니깐...내가 계속 못한다 하거든....내가 표현을 하거든...“내가 할 수 있겠나?” 이렇게 표현하면 “할 수 있다” 해주니까 참 고마운거지...여기까지와서 한국말도 배우고 할 수 있어 라고 해주고...”(참여자4)

“그런거 있지요. 요양보호사 땀다 하고 하면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사 따겠다고 하니까 그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간호조무사 얘기가 나왔거든요. 간호조무사를 해보고 싶은데...하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간호조무사는 근데 침 놓고 하는게 무섭다고 하니까 “무서울 게 뭐 있노?” 이러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모든 걸 지지해주는 것 같아요....”(참여자6)

나. 친구, 직장 동료로부터 도움받기

연구참여자들에게 친구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유입된 동등한 입장에서 친구로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를 이야기하였다. 참여자1은 이직을 위해 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는데 친구의 권유를 통해 취업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식당일이 손목도 아프기도 하다 보니까 “아~다문화센터 가볼까?” 이런 데 가보면 내 신분으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제 주위의 친구들이 권유를 했습니다. 저를 먼저 인정해준 곳이 남구였습니다. 저도 이제 이곳으로 등록을 해서 다문화 강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참여자1)

참여자2는 필리핀으로 출국을 위해 돈의 여유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연락을 해서 부탁을 했더니 흔쾌히 도움을 주어 고마웠다고 하였다.

“제 친구한테 처음에 같이 온 친구한테 “티켓 좀 사줘. 도저히 안 되겠어. 필리핀 가야겠어.”하고 부탁했더니 필리핀 가는 티켓을 사주는거예요...”(참여자2)

“일단 내가 모르는 일을 적극적으로 가서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해요?” 물어보고 제가 성격이 좋다 보니깐...나는 물어보는 거는 창피하지도 않고 모르는 거는 가서 물어 봤거든요...“아~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모님들 잘 가르쳐 주시더라구요. 진짜 많이 잘 배웠거든요. 뭐 관계에 대해서는 진짜 나쁜 건 없었던 것 같아요~처음에도 다 잘 대해주신 것 같아요.”(참여자6)

다. 학부모 모임으로부터 정보 공유 및 인정 받기

연구참여자들은 학부모 또는 학교 지인이라고 표현을 하였다. 이들은 학부모모임(학교지인)을 통해 자녀 교육 정보를 받고 있으며, 외국인이라는 차별없이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참여자1은 사회에서 만난 친구와 자녀의 중학교 1학년 때 형성된 학부모 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은 코로나19로 사적 모임이 제한적이지만 그전까지는 자녀교육 정보 외에도 시간이 되는 분들과 한 번씩 사적 모임을 진행하기도 했었다고 하였다.

“주민보다는 친구가 많아요. 동창이 아니라 사회에서 만난 친구, 안부 연락이 오

는 주민 중에는 우리 큰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학부모 모임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현재 중학교 2학년인데 확실히 중학교 1학년일 때 모임하는 엄마들이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참여자1)

참여자4도 역시 학부모들과 함께 친밀하게 사적 모임을 통해 자녀교육 정보를 얻으며,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외국인임을 알고 있으나 한 번도 외국인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 한 아이의 엄마 ‘학부모’로 인정해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냥...뭐랄까....기억도 안 나는데....그게 진짜 잘 해줘요....모르는 게 있으면 학교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는 상태이고, 들어도 모르는데 “커피 한 잔 하자” 해서 언니들 만나면 다 이야기하고 이런 거 이런 거 있다 알고 있지? 언니 처음 들었는데? 어려운 부분 있으면 설명을 다 해주고 이런 부분이 학부모 언니들이 편한 이유인 거 같아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나한테 연락오고 학교에서 이런 일 이런 일이 있는데 알고 있냐? 말해주고 은비한테도 보호해주고...외국인 애라고 그런 표현 없고...”(참여자4)

참여자6도 잘 챙기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른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연락이 와서 챙겨주거나,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편하게 연락하여 알아볼 수 있는 학부모 모임이 있다고 하였다.

“아~ 학교 엄마들은 내가 외국인이고 하니까 모르는 게 많잖아요. 학교에 대해서, 주로 학교 생활이죠. 엄마들은 모르는 거를 전화 통화해서 “이렇다” 이런 거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학교 지인들은, 학교 지인 엄마들은 애에 대해서도 말을 해주고 학교에서 이런 걸 한다 저런 걸 한다...하는데 “내가 모른다”하면 전화 통화해서 얘기해주고 이런 게 많아요.”(참여자6)

라. 지역사회기관 및 지역주민으로부터 지원 받기

연구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지원을 받거나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복지지원이 있으며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정서적 지원은 지역주민(이웃)에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2는 홀트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못 만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을 하며 지낸다고 하였다.

“이제 핸드폰 이거 있으니까 페이스북으로 연락하면 돼요. 어디서 만날까? 안 바쁘면...근데 서로 바쁘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한번 홀트에서 같이 공부하는거 그냥 만났어요.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참여자2)

참여자4는 남구에 있는 여성회관을 통해 방문지도사 소개를 받아 한국어 교육을 받게 되면서 한국어 실력이 늘게 되었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여성회관 가서 배웠죠. 남구에서 다니다가 선생님이 영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집에 선생님을 불렀어요. 남구에서 조금이라도 영어가 되는 선생님이로 해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 때 영어 하시는 분 와서 한국말로 배웠어요. 3개월 그렇게 배우고 여성회관으로 다시 왔어요. 조금 조금씩 아니까.....”(참여자4)

참여자5는 지역사회기관을 통해 친정엄마를 연계시켜주어 한국 생활하는데 연락도 하고, 한 번씩 만나 식사도 하고 반찬도 만들어 주는 등 실생활에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는다고 하였다.

“한국에 친정엄마처럼 이런 것도 있고 사이도 좋고 가끔씩 연락도 하고, 가짜 언니도 있고...언니 언니하는거 언니처럼 한국 사람하는데 동생, 언니 하는 거 있잖아요....근처에 계세요. 가끔씩 만나요...저 요새는 바빠서...안 바쁘면 점심에도 같이 밥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친정엄마는 그분도 마음 좋고 그 잘 챙겨주고 가끔씩 식사도 하고.....”(참여자5)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여성0ck결혼이민자들은 초기에는 음식, 명절 등 문화차이를 적응하는 과정에서 외로움, 어려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에서의 장기 거주를 한 결과, 한국말 실력이 점점 늘었으며 자녀가 자라면서 구직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추후 가족과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개인적인 사회적 관계망(친구, 가족, 지역주민(이웃), 직장동료,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 등)을 활용하여 도움을 받고 더불어 한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아 한국 사회에서 성장하고 한국 생활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을 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Berry(2003)의 문화적응전략 개념을 통해 한국사회에 장기 거주중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초기 정착 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경험을 하며 적응을 이루었는지 문화적응의 과정과 그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도 장기 거주하면서 실제로 필요로 한 지원서비스와 정책보다는 초기 정착에 집중되어 서비스 운영하는 기관과 정부 정책관련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3) 보고서에 따르면 초기 입국 3년 이내, 중기(사회진출준비 및 사회진출)은 거주 7년 이상, 장기(안착)은 거주 14년 이상으로 나타났다. 보통 중기 단계에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진출을 위해 준비하거나 이미 취업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주 기간 8년 이상된 취업 경험이 있는 자로서 총 6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들의 문화적응과정에서의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질적 연구 중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여 2021년 10월에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이후에는 연구자가 직접 진사지를 작성하였으며 반복적으로 중복되는 주제를 범주화하는 작업을 통해 ‘혼돈의 시기: 문화적 충돌 경험하기’, ‘불안감과 기대감 공존의 시기: 앞으로의 한국생활에 대한 불안 대비 및 기대하기’, ‘조화: 사회적 관계망 내 적극적 상호작용을 통한 자기 성장과 사회구성원으로 스며들기’ 총 3개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 나타난 주요 결과를 연구 주제별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혼돈의 시기: 문화적 충돌 경험하기’이다. 문화적 충돌로 음식 차이, 명절 문화 차이, 시부모님과의 마찰, 사회적 차별을 경험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동일하게 한국사회로 이주 후부터 서로 상이한 문화로 인해 충돌을 경험하고 있었다. 입국

초기에는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기도 하고 문화적 충돌로 인해 ‘일방적으로 한국사회 문화를 받아들여라’ 식의 ‘동화’유형이 나타났다.

둘째, ‘불안감과 기대감의 공존의 시기: 앞으로의 한국생활에 대한 불안 대비 및 기대하기’이다. 연구대상자들은 한국사회의 정착 기간이 늘어날수록 가족과의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에 성공하기를 기대하며, 미래에 가족이 함께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자녀의 미래에 살아가는데 한국어뿐 아니라 모국의 언어를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화: 사회적 관계망 내 적극적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구성원으로 스며들기’이다. 연구대상자들은 장기적으로 살아가면서 가족과 친구, 직장동료들의 지지와 지역주민(이웃),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 등의 개인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점점 활성화시켜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 공유 및 정서적 소통을 통해 한국 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다문화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지역사회 내 복지기관 또는 관계기관을 통해 소식을 받아 이용하며, 학령기 시기의 자녀들의 학교에서 형성된 ‘학부모 모임’을 통해 외국인인 아닌 자녀의 어머니, ‘있는 그대로’의 나로 인정받으며 장기적으로 정착 중인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국문화를 받아들이는 ‘통합’유형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3년 이내 입국 초기에 나타나는 경험은 자신의 대한 정체성은 포기하는 대신 주류문화인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초기 문화적응의 관점인 동화(assimilation) 유형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겪은 경험을 통해 얻은 문화 정체성과 관련한 것은 Berry(1997)가 제시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새롭게 접한 문화와도 긍정적인 관계를 이어나가는 유형인 통합(integration) 유형과 연결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의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한국 문화를 적절히 유지하여 이 사회에서 서로 공존해가는 방법을 터득하여 당당한 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입국 초기에 나타나는 동화유형의 형태의 결과는 김연수, 박지영(2010)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시간적 흐름속에서 이루어지며 이주 후 기간에 따라 개인적·제도적 통합 수준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처럼 장기 거주 중인 이들에게서 공존의 통합유형이 이형하(2015)의 연구결과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 참여자인 여성결혼이민자의 개인적 경험으로 인해 문화적응 과정이 동화에서 통합유형으로 변화한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이 한국 생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 서비스와 정책을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었다.

첫째,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초기, 중기, 장기 정착 단계별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설정해주는 것이 필요로 한다. 현재 국가의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이들에 대한 지금까지 국가적 지원정책은 초기 입국 후 일방적인 문화습득과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이 주로 이루고 있다. 이는 이주 후 이들이 한국문화에 바로 스며들기를 원하는 일방적 동화주의적 정책으로만 일관한 것으로 보인다. 초기 정착 후, 중기, 장기 정착 기간에 맞는 맞춤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하며, 장기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자기 능력 개발 프로그램, 취업 지원 및 사후 관리, 보다 적극적인 개인적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임 활동의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자국민에게도 다문화 이해 교육 및 인식개선 교육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입국 초기부터 한국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쯤 결혼이민자 또는 다문화가족이라는 편견으로 인해 거절이나 무시

받는 경험을 받기도 하였다. 일방적으로 이들에게 한국문화에 적응하라는 방식보다는 자국민 또한 다문화 수용의 자세를 가지며 다문화사회라는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가족과 자국민이 함께 공존하는 서비스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과는 별개로 이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존의 대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다양한 정보도 공유하고 소통하는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수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과정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분석하여 이들의 입장에서 문화적응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질적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지만, 연구 과정에서 한국 거주기간이 8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취업 경험이 있는 소수의 부산 거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문화적응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국적의 연구 대상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부산지역 내 거주 취업 경험이 있는 자들이 연구 대상이다. 부산지역뿐만 아니라 경남 또는 전국 단위로 대상자를 모집한다면 문화적응 과정에서의 다양한 경험의 의미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장기 거주 중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의미를 분석해보는다면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 생활과 문화에 통합을 이룬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응의 특징과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구차순 (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부산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김명준 (201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유형에 따른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정, 신성만 (2010). 도시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역량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711-737.
- 김복태, 이승현 (2015). **결혼이민자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실행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분한, 김금자, 박인숙, 이금재, 김진경, 홍정주, 이미향, 김영희, 유인영, 이희영 (1999).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 Giorgi, Colaizzi, Van Kaam 방법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9(6), 120.
- 김연수 (2007). 서울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 21, 217-252.
- 김연수 (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영향요인 연구 서울·경기 및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3(4), 5-38.
- 김연수, 박지영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경험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0, 269-298.
- 김연희 (2007).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와 사회복지분야의 문화적 역량. **사회복지연구**, 35, 117-144.
- 김영란 (2006).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관련 정책. **아시아여성연구**, 45(1), 143-189.

- 김영순, 최유성 (2020). 사회통합을 위한 결혼이주여성의 상호문화소통 탐색. **현대사회와 다문화**, 10(4), 91-126.
- 김오남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8(3), 63-106.
- 김은정 (2013). **결혼이주여성의 여가활동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언어 능숙도와 사용도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이선 (2007).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9-32.
-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7).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지혜 (2015).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소비경제생활문화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다문화가족 지원포털 다누리(2022). <https://www.liveinkorea.kr/portal>
- 문은희 (2007).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과 여가참여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법무부 (202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월보 2021년 1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서은경, 김병석 (2013). 다문화가정의 부부갈등과 자녀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지지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1(2), 449-476.
- 설동훈, 김운태, 김현미, 윤홍식, 이혜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설동훈, 윤희식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복지정책의 과제. 출신국가와 거주지역에 따른 상이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4(2), 109-133.
- 신경림, 장연집, 박인숙(공역) (2004).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 서울: 현문사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외(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신경임 (201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망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지연 (2017).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가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순미 (2007). 농촌 국제결혼 부부의 행복에 관련 변인이 미치는 효과. **한국농촌사회**, 17(2), 1-24.
- 염동문, 임채영, 김한솔 (2019). 결혼이주여성 문화적응 유형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 잠재프로파 일분석 활용. **사회과학연구**, 35(3), 187-208.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질적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스토리.
- 이대희(역) (2020). **문화변용과 적응**. 서울: 에코리브르.
- 이숙자 (2017). **여성결혼민자의 자아존중감과 양육효능감의 관계 : 문화적응과 사회적 지지의 중다매개효과**.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종호, 노연희 (2017).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문화적응 간의 관계. **다문화콘텐츠연구**, 24, 235-273.
- 이형하 (2015).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세계와 사회자본**. 경기도: 공동체.
- 임은희 (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신건강 문제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영논총**, 12.
- 전병주 (2012).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및 문화변용스트레스가 학

- 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0(11), 29-38.
- 정장엽, 정순관 (2014). 한국 다문화가족정책의 정향성 분석: 동화주의와다문화주의. **지방정부연구**, 17(4), 121-141.
- 조민경, 김렬 (2010). 한국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이주민의 이중문화 정체성과 사회문화적응의 관계. **대한정치학회보**, 18(2), 263-291.
- 주소희, 이정은 (2014).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서적고립 및 소외와의 관련성 연구.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7(1), 45-64.
- 최경희 (2014). **국내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사회적 지지, 사회활동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기독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승은 (2020).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열린교육연구**, 28(1), 143-167.
- 최운선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6(1), 141-181.
- 최혜지 (2009).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1), 163-194.
- 최혜지 (2012). 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가 문화변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보장연구**, 28(1), 217-244.
- 표준국어대사전 (2021). <https://stdict.korean.go.kr>
- 통계청 (2019). **인구동태통계연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결혼이민자 정착 초기 지원 프로그램 개편 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 서울: 여성가족부.
-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Lead article

- with commentary).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5-68.
- Berry, J. W. (2003).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In K. Chun, P. Balls-Orgamista & G. Marin (eds.), *Acculturation: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pp.17-37).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erry, J. W.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6), 697-712.
- Berry, J. W., & Kim, U. (1988).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In P. R. Dasen, J. W. Berry, & N. Sartorius (Eds.), *Health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Toward applications* (pp. 207 - 236).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Redfield, R., Linton, R., & Herkovits, M. (1936). Memorandum for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1), 149-152.
- Thurnwald. R. (1932). The psycholog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4(4), 557-569.

< 인터뷰 가이드 >

1. 한국생활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2. 시댁식구와의 관계가 어떠신지요?
3. 모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는 무엇인지요?
4. 가족 외에 알고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요?
5. 현재 참여하고 있는 모임은 있는가요?
6. 취업 준비와 직장 생활은 어떤가요?